

2025년 4월 30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5년 4월 28일

SKT(017670)

BUY | TP 70,000원 | CP 53,900원

KT(030200)

BUY | TP 70,000원 | CP 51,100원

LGU+(032640)

BUY | TP 14,000원 | CP 11,910원

통신서비스 5월 투자 전략

실적 시즌 밸류업 기대감이 결국 통신주 올릴 것

5월 투자 매력도 ‘높음’ 유지, 1Q 실적/밸류업이 통신주 올릴 전망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2025년 5월 투자 매력도 ‘높음’을 유지한다.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통신 3사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YoY 높은 이익 성장으로 주주이익환원 중대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임에도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낮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고주파수 사용 본격화/글로벌 5G Advanced 도입/5G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점도 통신 3사 추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월 이슈 많을 것, 통신주에 유리한 투자 환경 펼쳐질 전망

5월엔 통신 이슈가 많은 편이다. 1) 2025년 1분기 통신 3사 실적 발표, 2) LGU+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 가능성, 3) KT CEO 투자가 미팅, 4) 대선 전 각 정당 통신 관련 공약 발표 가능성, 5)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 발표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5월 부각될 제반 이슈로 보면 악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통신주 약세 요인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5월 통신 관련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5월에 부각될 호재는 많다. 아직은 실적 발표 전이라 5/8~5/12일 어닝 시즌 발표될 통신 3사 1분기 실적이 통신 3사 추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과 더불어 밸류업 향상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12개월 Top Pick KT로 유지, 5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 2025년 5월 월간 Top Pick 역시 KT로 제시한다. 더불어 5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평가한다. KT의 경우 경영진의 추가 부양 의지가 큰 데다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 밸류업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5/9일 1분기 실적 발표 후 추가 하락 리스크도 낮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LGU+ 역시 5월엔 투자 유망하다. 오랜만에 어닝 시즌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존 자사주 소각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전망 밝고 밸류업 이
슈 지속될 것이며 절대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장기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것이며, 2) 실적 흐름 및 시중 금리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기대배당수익률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고, 3) 2025년 가을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며, 4) 국내 통신 3사 주주이익환원규모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가 상승 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고, 5)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이며, 6) 본질적으로 2026년 하반기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2025년 이후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Multiple 확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5월)	투자의견 (4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 금리 감안 시 통신 3사 기대배당수익률 과도하게 높은 상황 -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사 신규 5G 요금제 출시 전망 - 통신 규제 정책 2025년엔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주주이익환원규모 증가분 대비 통신주 상승 폭 미미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5월 통신주 투자 매력 높음, 실적/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시점, 규제 상황 여전히 양호

2) 5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올해 실적/주주환원 기대감이 추가 올릴 것

2025년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통신 3사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YoY 높은 이익 성장으로 주주이익환원 증대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치뤄지는 상황임에도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낮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여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통신 3사는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통신 3사 모두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성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인건비 감소 효과가 두드러질 KT와 영업비용 감축 효과가 본격화된 LGU+의 실적 호전이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될 것이라 2025년 연간 통신서비스 업종 이익 성장 기대감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더불어 주주이익환원 금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섹터 특성상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실적 및 배당 전망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KT는 이러한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경영진이 1분기 배당금을 600원으로 20% 상향 조정하였으며 2분기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이다. 올해 실적이 워낙 좋을 것이며 경영진들의 추가 부양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시가 배당을 측면에서 매력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KT 추가 주가 상승 시 배당 증액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1분기 어닝 시즌 LGU+의 경우엔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의 경영진 언급을 감안하면 그렇다. 1분기 실적 발표 전 기존 보유 자사주 1.6% 소각 발표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자사주 소각 발표를 계기로 2022~2024년 2,800억원 수준의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2025년을 기점으로 3,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 LGU+의 자사주 매입/소각 행태가 자사주 선 매수 후 소각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자사주 매입분 중 일부를 2026년 소각할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조기 대선 영향으로 5월 통신 요금 인하 리스크 부각 가능성을 걱정한다. 물론 일부 정당에서 요금인하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제로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현재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 이슈를 감안하면 그렇다. 과거 통신 요금 규제 강도는 네트워크 투자 규모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투자가 감소하면 소비자/규제 기관의 요금 인하 압력이 높아진 반면 통신사 투자가 증가하면 요금 인상을 일정부분 용인하였다. 그렇다고 보면 2025년도엔 통신 요금 인하보단 투자 활성화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신규 5G 주파수 할당에 나서고 중국이 5G Advanced 서비스를 개시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네트워크 투자를 등한시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에 진입하면서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제 2라운드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국내만 등 떨어진 통신 요금 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5월)	투자 매력도 (4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1분기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 합계 YoY 18% 증가 예상 - SKT/LGU+ 1Q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 비용 감축이 결정적 - KT 1Q 컨센서스 하회하나 내용면에서 우수한 실적 기록할 전망 25년 KT 본사 영업이익 1.7조원 전망, DPS 2,800원 예상 - LGU+ 25년 연결 영업이익 9,500억원 예상, 이익 증가 전환 유력 - KT 1Q 배당금 600원(YoY 20%) 결정, DPS 증가 기대감 고조 - LGU+ 1.6% 자사주 소각 발표 예상, 주주 환원 증가 기대감 상승 - 패권 경쟁 이슈로 조기 대선에도 요금 인하 리스크 낮은 상황 - SKT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 소송 예고, 규제 우려 감소할 듯 - KT 주주이익환원 규모 90% 증가, 주가 상승 폭은 50%에 불과 - LGU+ 주주이익환원 규모 25% 증가, 주가 상승 폭은 10% 수준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제 4 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이제 선정 어려울 듯 - OECD 국내 통신 요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발표 - LTE 주파수 재할당 이슈로 2025년 가을 국내 주파수 경매 유력 2025년 말 이후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 예상 - LTE/5G 도입 당시 대비 현재 통신사 Multiple 너무 낮은 상황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4월 통신주 시장대비 상대적 강세 시현, LGU+ 강세

3) 4월 통신업종 수익률 코스피를 상회, LGU+ 강세

4월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상회하였다. 월 초반 KOSPI가 급락하면서 방어주로 수급이 이동한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 3사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여기에 KT가 1분기 배당금 인상을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정작 분기 배당금 증액을 발표한 KT보다 LGU+의 주가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KT 분기 배당금 발표는 이미 지나간 화재인 반면 LGU+ 자사주 소각은 다가올 화재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LGU+가 3년 만에 우수한 실적을 발표한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도표 3. 2025년 4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2.1	5.7	2.4	5.2

주: 지수는 4/28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verse, 하나증권

도표 4. 2025년 4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3.2)	(1.6)	(2.9)	(2.1)
KT	2.5	8.7	2.9	8.2
LG유플러스	14.9	19.8	15.2	19.3

주: 주가는 4/28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verse, 하나증권

4) 5월 통신주 투자 환경 양호 평가, 규제 우려 보단 밸류업 기대감이 더 커

규제 리스크 크지 않음, 실적 발표 전 후 밸류업 기대감 확대 예상

4월 통신주 성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5월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업종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 증가/자사주 소각 단행 등 밸류업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 저평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통신주 상승이 예상된다.

5월엔 통신 이슈가 많은 편이다. 1) 2025년 1분기 통신 3사 실적 발표, 2) LGU+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 가능성, 3) KT CEO 투자가 미팅, 4) 대선 전 각 정당 통신 관련 공약 발표 가능성, 5)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 발표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5월 부각될 제반 이슈로 보면 악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통신주 약세 요인을 찾기 어려워 보이며 호재가 눈에 많이 띈다. 대선을 앞두고 5월 통신 관련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 이슈를 감안할 때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5월에 부각될 호재는 많다. 아직은 실적 발표 전이라 5/8~5/12일 어닝 시즌 발표될 통신 3사 1분기 실적이 통신 3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연간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과 더불어 밸류업 향상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이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고주파수 사용 본격화/글로벌 5G Advanced 도입/5G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KT의 경우엔 우수한 2025년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이 강화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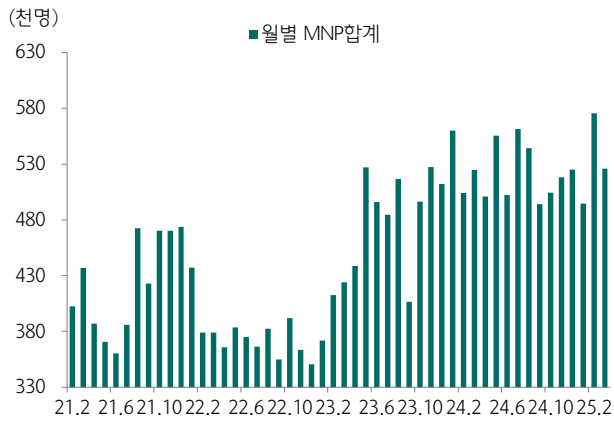
도표 5. 5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5월 통신주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전망, 이익 성장/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주가 올릴 것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2025년 1분기 통신 3사 모두 연결 영업이익 증가 전망, 25년 이익 증가 기대감 커질 것 • KT 1분기 배당금 600원으로 상향, 올해 DPS 2,800원으로 YoY 40% 증가 전망 • 1Q 어닝 시즌 LGU+ 700억원(1.6%) 규모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여부 결정 예정 • 6/3일 21대 대통령 선거 예정, 하지만 4차 산업 패권 경쟁 심해 요금인하 압력 높지 않을 것 • 25년 주주이익환원 KT 9,500억원/LGU+ 3,500억원 예상, 2년 전 대비 각각 90%/25% 증가 전망 • 경쟁 상황 감안 시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KT 인건비 감소로 2025년 본사 영업이익 급증 예상, 배당금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증가 전망 • LGU+ 무형자산상각 부담 감소, 2025년엔 두 자리수 영업이익 증가 전망 • LTE 주파수 재할당 이슈 감안 시 2025년 가능 5G 추가 주파수 경매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 • 2025년 가을 이후 신규 주파수 투자 돌입 예상, 2025년 말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 전망 • 미국 FCC 주파수 경매 의견 청취 중, 2025년 내 신규 5G 주파수 경매 진행 예상 •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시장 진입 실패, 당분간 재추진 가능성 낮아 • 2025년 통신요금인하 보단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로 규제 정책 전환 예상
부정적 요소	• 1분기 통신 3사 이동전화매출액 YoY로도 정체 예상, 26년 매출액 감소 우려 커질 듯 • 6월 대통령 선거 전 각 정당 통신 요금 인하 정책 발표 가능성 존재 • 24년 이후 트랙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장기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 경기 회복 기대감 커질 시 상대적인 통신주 매수세 유입 약화 예상 • 일회성 이익/비용 제거 시 25년 통신사 이익 사실상 정체 예상 •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가입자수 증가/마케팅비용 증가 리스크 낮지만 시장 우려 여전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통신사 25년 가을 5G 주파수 경매 참여 의지 낮음, 요금제 개편 기대감 약화 •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 30GB 미만 중저가 5G 요금제 다수 출시, 요금 과소비 축소/낙전 수익 감소 예상 • 2025년 투자 유망한 KT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약점 존재
종합 평가	• 통신서비스 25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주주이익환원수익률로 보면 특히 KT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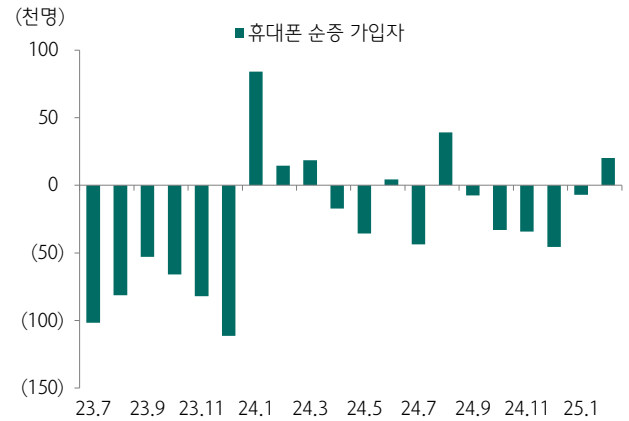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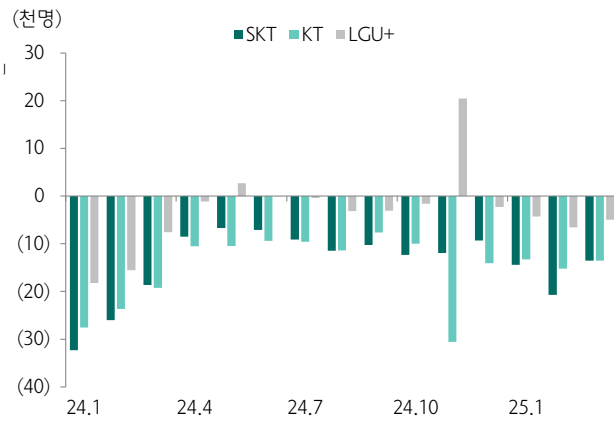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7. 휴대폰 순증가입자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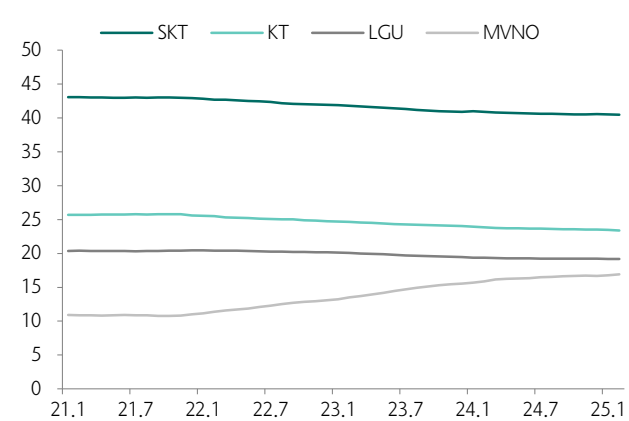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8.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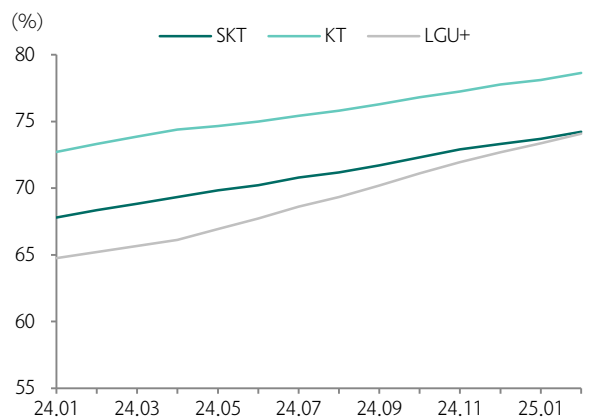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9.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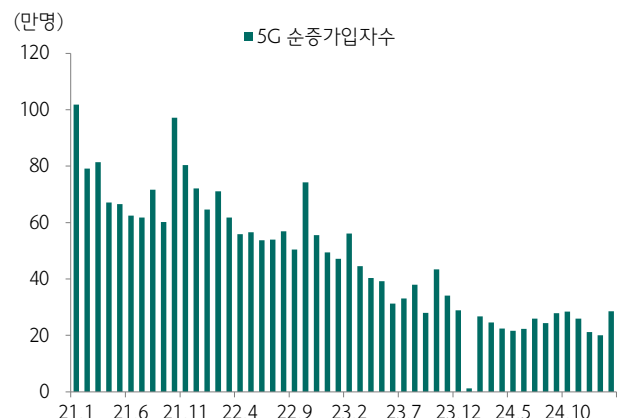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0.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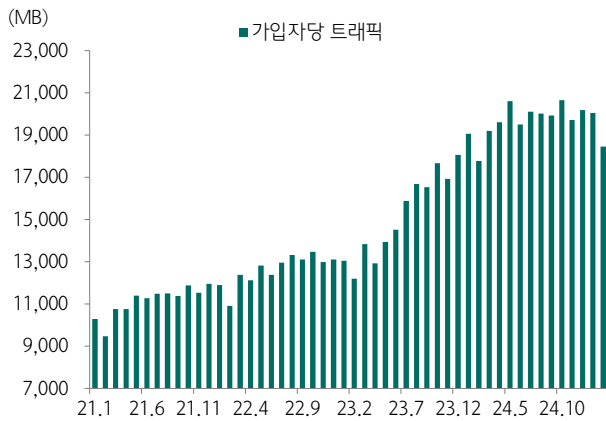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1.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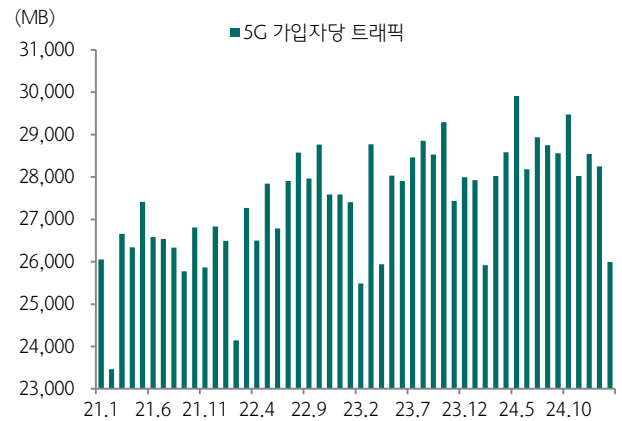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2.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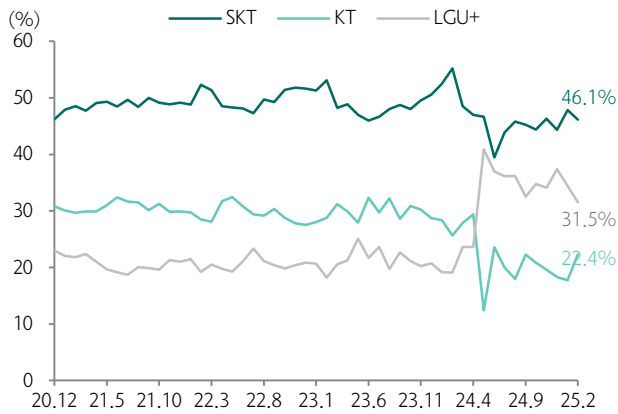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3.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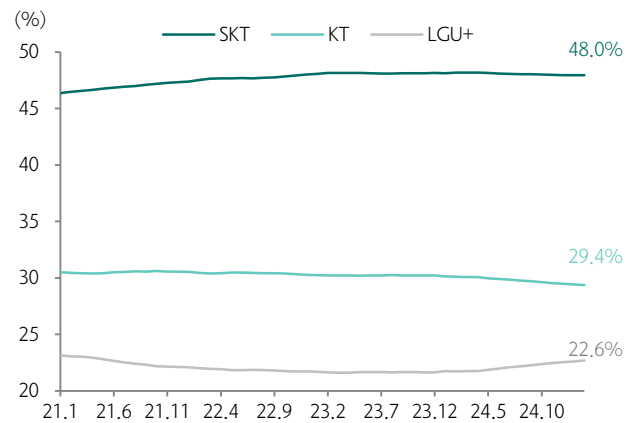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4.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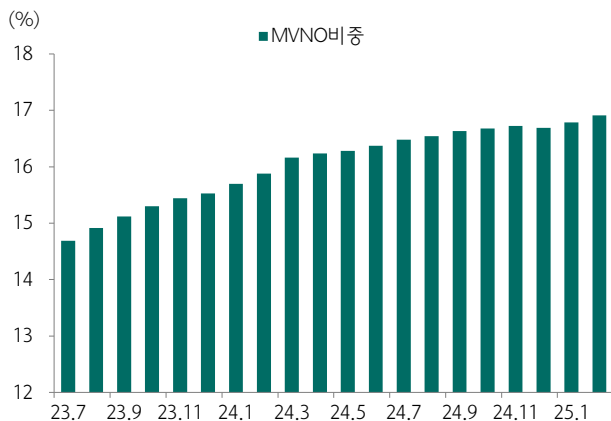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5.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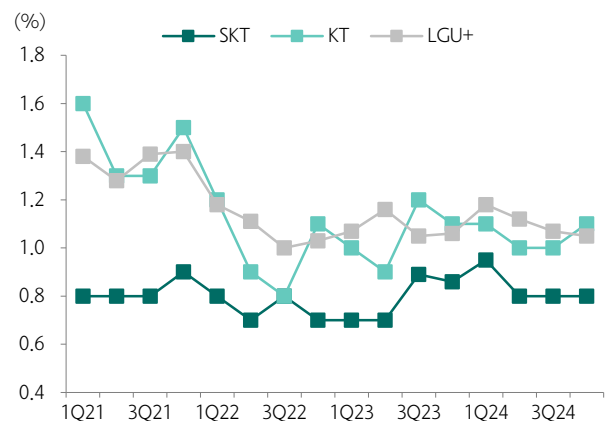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6.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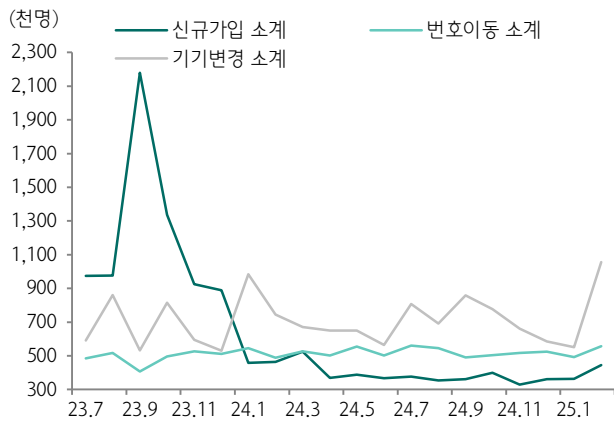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7.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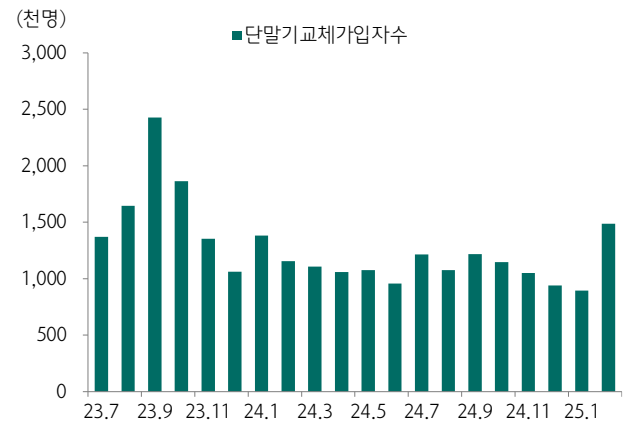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18.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9.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은 KT로 유지, 5월 투자매력도는 KT>LGU+>SKT 순

1)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2025년 높은 이익/배당 증가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성장률, 3) 기대배당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 하면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KT를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주주이익환원규모 대비 현재 시가 총액이 너무 적고 주주이익환원 증가분을 감안하면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2023년 5천억원에서 2025년 9,500억원으로 9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주가 상승 폭은 50%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네트워크 자회사 물적 분할을 통한 조직 개편 효과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본사 이익 증가를 통한 배당 재원 증대와 더불어 조직 슬림화 통한 수익성 향상, 원활한 신사업 육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5년도엔 KT가 주도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20.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KT	- 기저 효과로 2025년 이익 급증 예상 2025년 주주이익환원 규모 9,500억원으로 급증 예상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 조직 개편으로 본사 기업 가치 상승 전망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3사 중 ROE 가장 낮은 편 - 경쟁사대비 과도한 영업비용, 방대한 자산 규모 - 가입자 M/S 하락 추세
SKT	24년 기저 낮아져 25년에도 이익 성장 지속할 전망 - 일시적 비용 증가 효과 종료, 수익성 개선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것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높은 주주이익환원 지속될 전망	- 단기 배당 정체 양상, 높은 배당 성향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률 둔화 양상 - AI 사업 성과 부족 - 상대적으로 높은 PER/PBR 수준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조달 금리/기대 배당수익률로 보면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 충분 3년 만에 높은 이익 증가 전환 예상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 MNO 가입자 성장 정체, 가입자 질 저하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알뜰폰 M/S 규제 시 가입자 성장 정체 예상
종합평가	2025년 본사/연결 영업이익 및 DPS 급증, 높은 주주이익환원 수익률을 감안하여 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5월 매력도는 KT>LGU+>SKT 순, DPS 증가 기대감 커질 KT를 최선호

5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평가,
실적/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KT
를 최선호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2025년 5월 월간 Top Pick 역시 KT로 제시한다. 더불어 5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평가한다. 1분기 연결/본사 영업이익 증가와 더불어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KT를 최선호한다. 더불어 1분기 어닝 시즌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3년만에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LGU+ 역시 매수에 나설 것을 권한다.

KT를 5월 월간 최선호종목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미 1분기 배당금을 600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향후 분기 배당금이 70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주가 부양 의지가 큰 데다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 KT의 밸류업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일부에선 1분기 실적이 이미 양호할 것으로 투자자들이 예상함에 따라 정작 5/9일(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KT 주가가 하락하는게 아니냐고 질문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이익의 75%가 2분기에 계상될 전망이다. 점에서 보면 그렇다. 오히려 KT 주가가 올라서 기대배당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 경영진이 추가적인 분기 배당금 상향 조정 조치를 행할 수 있어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LGU+ 역시 5월엔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오랜만에 어닝 시즌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기존 자사주 소각 발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년 만에 2025년 연결 영업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Multiple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24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의 경영진 언급을 감안할 때 700억원에 달하는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신규 자사주 매입 추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주주 환원 규모 증가 양상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 같다.

SKT 역시 5월엔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물론 최근 SKT 호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봐도 그렇고 밸류업 이슈로 판단해도 주가 상승을 일으킬만한 재료가 부재하다. 하지만 5월에는 SKT 주가는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컨센서스 추이에 추종하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2024년 일회성비용 반영으로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확실한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속에 양호한 수급 형태를 나타내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것이란 판단이다.

도표 21.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KT	매수	70,000원	• 2025년 괄목할만한 실적 호전 예상,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분 대비 주가 상승 폭 적음
SKT	매수	70,000원	• 장기 안정적 이익 성장 기조 유지될 전망, 기대배당수익률 높은 편
LGU+	매수	14,000원	• 2025년 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것, 25년 자사주 소각 예정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22. 5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4/28)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KT	51,100원	47,000~70,000원	6.8	0.7	• 주주이익환원 증가 폭 감안 시 주가 상승 폭 크게 나타날 전망
2	LGU+	11,910원	10,000~12,000원	8.9	0.6	• 2025년 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지속될 것
3	SKT	53,900원	54,000~62,000원	9.6	0.9	• 25년에도 이익 성장 전망되나 배당 정체 예상

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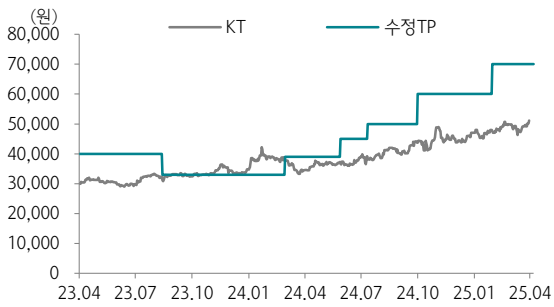
도표 23. 5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5월)	순위(4월)	순위 변화	사유
KT	1	1	-	• 조직 개편 효과 강력, 주주이익환원 증가 분 대비 주가 상승 폭 크지 않은 상황
LGU+	2	2	-	• 이익 성장 및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 기대감 상승 중
SKT	3	3	-	• 기대배당수익률 높지만 배당금 정체 우려 커지는 상황, 단기 호재 부족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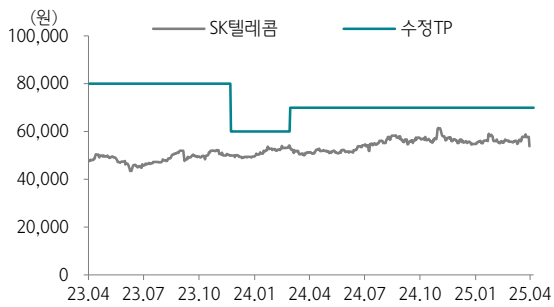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2.27	BUY	70,000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23.9.11	Neutral	33,000	5.93%	27.88%
23.3.7	BUY	40,000	-23.13%	-16.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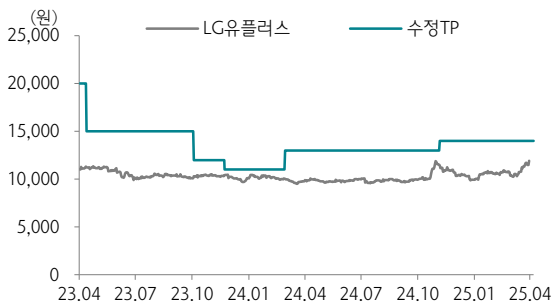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4.3.28	BUY	70,000		
23.12.21	BUY	60,000	-14.64%	-9.83%
23.4.29	1년 경과		-	-
22.4.29	BUY	80,000	-36.74%	-23.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4.12.4	BUY	14,000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23.12.21	Neutral	11,000	-8.00%	-4.64%
23.11.1	BUY	12,000	-13.67%	-12.50%
23.5.11	BUY	15,000	-29.73%	-24.47%
23.4.29	1년 경과		-	-
22.4.29	BUY	20,000	-40.94%	-29.25%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4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5년 4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95%	5.05%	0.00%	100%

* 기준일: 2025년 04월 27일